■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 나흘째

떴다! 최솔규…남고부 2연패 찜

충주공고 강형석 2-0 누르고 단식 16강행
김수연·최민정은 여대부 단식 8강에 올라



'제2의 박주봉을 향해!'

올림픽 효자종목 배드민턴의 차세대 기대주 최솔규(서울체고·사진)가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셔틀콕 축제인 제55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고부 단식 2연패에 시동을 걸었다.

아직 2학년이지만 최솔규는 이미 정상급 고교선수로 꼽히며 국가대표 후보선수단에 선발됐다. 특히 1학년 때인 지난해 이 대회 남고부 단식에서 우승하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1학년이 전국의 모든 선수가 참가하는 종별선수권대회 남고부 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전 세계 배드민턴의 전설로 꼽히는 박주봉 현 일본국가대표팀 감독 이후 31년 만이었다. 당시 경기를 지켜본 김중수 전 국가대표 감독은 "이용대(삼성전기)도 1학년 때 결승에 올랐지만 3학년 선배에게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까 기대가 된다"고 말했었다.

최솔규는 14일 충북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일째 남고부 단식 32강전에서 충주공고 강형석을 2-0으로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1세트를 21-7로 크게 이긴 최솔규는 2세트도 21-14로 마무리하고 가볍게 16강에 진출했다. 주니어국가대표인 문수고 정재욱도 김천고 김승민을 2-0(21-7 21-16)으로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여대부 단식 16강전에선 김수연(군산대), 최민정(한국체대) 등이 8강에 올랐다. 남대부 복식에선 김기정-김대은(원광대), 강지욱-김대선(한국체대)이 8강에 진출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 경기결과

•남자 대학부 단식 16강=이동근(한체대) 2-0 김종훈(경희대), 박성민(인하대) 2-1 전봉찬(동의대), 김재원(한체대) 2-0 전용현(동의대), 구무녕(경희대) 2-0 하영식(원광대), 최영우(한체대) 2-0 이상민(인하대), 이홍제(한체대) 2-0 하영웅(원광대), 김민기(경희대) 2-0 이은호(충청대), 주명균(인하대) 2-1 임종우(동의대)

•남자 대학부 단식 2회전=이동근(한체대) 2-0 김덕용(경남과기대), 김종훈(경희대) 2-0 김진(동의대), 박성민(인하대) 2-0 송유진(한체대), 전봉찬(동의대) 2-0 김동훈(원광대), 전용현(동의대) 2-0 박대웅(원광대), 김재원(한체대) 2-0 정석훈(인하대), 하영식(원광대) 2-1 김건우(대구가톨릭대), 구무녕(경희대) 2-1 정기화(한체대), 최영우(한체대) 2-0 진지훈(백석대), 이상민(인하대) 2-1 신재민(동의대), 이홍제(한체대) 2-0 강민우(경남과기대), 하영웅(원광대) 2-0 김동민(경희대), 이은호(충청대) 2-0 박민재(원광대), 김민기(경희대) 2-1 윤주영(한체대), 주명균(인하대) 2-0 김현수(한체대), 임종우(동의대) 2-0 정영준(원광대)

•여자 대학부 단식 16강=김수연(군산대) 2-0 이누리(한림대), 김소희(한국국제대) 2-1 이지영(서해대), 유다희(인천대) 2-0 김세진(군산대), 최민정(한체대) 2-0 김진(공주대), 정지송(인천대) 2-0 강은지(한림대), 김수진(인천대) 2-0 김나영(군산대), 박은진(동양대) 2-0 김지은(대진대), 정주의(군산대) 2-0 고민정(동양대)

(광고)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보험…
하나로 준비 끝!

하나의 상품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보험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무)교보하나로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상품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 보장은 물론 특약으로 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상품에 대해 무료전화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다.(080-399-0099/www.directlife.com)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2-110호(2012.1.27)



네덜란드 로번이 14일 독일과의 유로 2012 B조 예선 2차전에서 볼을 빼앗긴 뒤 그라운드에 쓰러진 채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카르키프(우크라이나) | 로이터 연합뉴스

"네덜란드 무능한 감독 탓에 와르르"

이영진의 유로 2012 관전평

독일에 1-2패…우승후보가 2연패 수모
단조로운 용병술·MF부진 총체적 난국

14일(한국시간) 우크라이나 카르키프에서 열린 네덜란드와 독일의 유로 2012 B조 2차전은 화려한 개인이 탄탄한 팀을 이겨낼 수 없다는 축구의 전형을 보여준 한 판이었다. 독일의 2-1 승.

1차전에서 덴마크에 패한 네덜란드를 놓고 선수단 불화설 등 다양한 이유가 나왔지만 전술적인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베르트 판 마르바이크 감독의 용병술이 지적받고 있다.

판 봄멜-데 용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전혀 역할을 못했다. 디펜스 안정과 2선 공격 지원이 임무였으나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다. 독일의 공세 때 네덜란드는 6명이 수비진에 위치했으나 전혀 효율적이지 못했다. 축구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슈바인슈타이거-고메즈가 이룬 독일의 공격에 맥을 못 췄다. 전반 볼 점유율은 훨씬 높았으나 전반 24분과 38분 고메즈에게 두 골을 얻어맞았다. 볼 배급의 핵인 슈바인슈타이거의 이동을 네덜란드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모양새였다.

참을 수 없는 단조로움도 지적대상이었다. 후반 28분 골게터 판 페르시의 만회골이 아니었다면 90분 내내 지독할 만큼 중앙을 파고든 플레이는 지루함을 더해줬다. 의지와 집중력도 문제였다. 판 페르시의 만회골이 터졌을 때 5분 간 반짝 공세를 취했을 뿐, 금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후반 들어 투입된 얀 훈텔라르와 판 더 바르트가 이런저런 시도를 했지만 이미 팀은 승부를 포기한 상태였다.

'네덜란드 축구 영웅' 요한 크루이프도 "베스트 구성이 잘못됐다. 우린 수비형 요원을 2명 배치하면 공격이 사라진다. 더 과감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네덜란드의 자중지란을 보며 심플하면서도 빠르고, 또 저돌적인 모습으로 완벽한 팀 밸런스를 이룬 독일이 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지를 느꼈다면 지나친 역설일까.

포르투갈은 같은 날 덴마크를 3-2로 꺾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자랑하는 호날두는 전혀 이름값을 못 했다. 결정적인 단독 찬스도 놓쳤다. 스타 군단과 스타들의 부진. 이래저래 흥미진진한 유로대회다.

스포츠동아 해설위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donga.com 트위터@simss23

무서운 신예들, KLPGA 상반기 쥐락펴락

김자영 정혜진 이예정 등 새강자로 우뚝
14일 에쓰오일 챔피언스…V 예측 불가

5개 대회를 끝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판도는 예상을 뒤엎었다.

지난해 상금왕 출신 김하늘(24·비씨카드)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김자영(21·넵스)과 정혜진(25·우리투자증권), 이예정(19·에쓰오일) 등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했다.

14일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에쓰오일 챔피언스(총상금 5억원)는 상반기 시즌 마지막 대회다. 우승상금 1억원의 향방에 따라 상금랭킹 순위도 요동칠 수 있다. 롯데 칸타타여자오픈에서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김자영은 아쉽게 우승을 놓쳤지만 여전히 상금랭킹 1위(2억2097만원)에 올라 상반기 최고 스타로 등극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후보다. 김자영은 "2주 연속 우승 뒤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라 많이 피곤했다. 제주에 머물면서 많이 회복했다. 상반기 마지막 대회에 우승을 노려보겠다"고 말했다.



김자영

정혜진

김하늘은 여전히 강자다운 모습이다. 우승은 없었지만 5개 대회 중 4개 대회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즌 초반 호주와 미국, 일본 등 해외 투어에 출전하면서 컨디션 조절이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만족스런 성적이다.

정혜진은 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샷 연습에 주력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요즘 2주 연속 우승이 대세인데 나도 해보고 싶다"며 욕심을 냈다.

대회가 열리는 엘리시안 골프장의 코스 레코드를 갖고 있는 디펜딩챔피언 이미림(22·하나금융)은 2연패 도전에 나선다. 이미림은 작년 이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쳐 유소연이 갖고 있는 7언더파 65타의 코스 레코드를 깨며 우승했다. 이밖에도 신예 이예정, 최근 샷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심현화와 문현희, 배경은, 양수진 등도 호시탐탐 우승을 노리는 강자들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SK 나이츠-나이키 빅맨 캠프' 개최

프로농구 SK와 나이키 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SK 나이츠-나이키 빅맨 캠프가 15~18일 경기도 이천 SK텔레콤 미래경영연구원에서 열린다. 한국농구의 미래를 책임질 전국 24개 중학교 54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캠프 헤드코치로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들의 개인 트레이닝 코치를 맡고 있는 제이슨 라이트가 초청된다.

넵스, 29일 '김자영 팬미팅' 행사

김자영을 후원하고 있는 넵스는 14일 '김자영 팬미팅' 행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팬미팅은 29일 서울 삼성동 넵스 본사에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일까지 넵스 페이스북(www.facebook.com/nefspace)에서 '김자영 프로 3승 기원 응원 댓글 달기 이벤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